2017.6.5 408호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주정부 최초로 음식열량 표기 의무화	빅토리아
문화·관광	3	‘재능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·지원’ 공모전 개최	토스카나
사회·복지	5	사회적기업에 사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지원	빅토리아
행재정·교육	7	비정규 교과활동 프로젝트 수행 시민단체 지원	파리
환경·안전	9	도시 소비 모든 에너지,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	밴쿠버
도시계획·주택	11	“칸 시장,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에 정책 우선순위”	런던
정보·기타	13	점포·시설 등 안내 고정밀 실내외 음성 내비게이션 실험	도쿄

서울연구원
The Seoul Institute

주정부 최초로 음식열량 표기 의무화

패스트푸드점, 대형 음식체인점, 대형 슈퍼마켓에 적용

호주 빅토리아州 / 행재정·교육

○ 호주 빅토리아州는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패스트푸드점·대형 음식체인점·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 표기를 의무화한 '음식법 개정안(2016)'을 주정부 최초로 승인

- 배경
  - 과체중과 비만으로 개인적·사회적 건강과 생산성이 저해
    - 비만으로 인한 주정부의 보건 재정 지출이 140억 4천만 호주달러(11조 7천억 원)
    - 빅토리아주 전체 주민의 2/3, 아동의 1/4이 과체중 혹은 비만
  - 비만의 주요 원인은 열량이 높은 음식의 과잉 섭취
    - 호주인들은 평균 주 4회 외식을 하며, 외식용 음식의 44%는 고열량식
    - 주로 대형 음식체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인스턴트와 기성식품
    - 그러나 연구결과 호주인들은 음식 선택 시에 열량을 거의 고려하지 않음
  - 음식 열량 표기가 열량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
    -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유사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열량 섭취가 약 15% 감소한 것으로 보고

- 주요 내용
  - 현행법은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의 영양정보 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, 비포장 기성식품(피자, 감자칩 등)에는 적용되지 않음
    - 현재 약 50%의 음식체인점은 자발적으로 열량을 표기 중
  - 패스트푸드점·대형 음식체인점·대형 슈퍼마켓에 적용
    - 빅토리아주 내에 20개 이상 혹은 호주 전체에 5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대형 음식체인점
    - 규모와 상관없이 버거·치킨·피자·분식·커피·빵·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모든 체인점이 대상

- 바닥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
- 3천여 개의 체인점과 650여 개의 슈퍼마켓이 적용대상이며, 소규모 매점·이동 식당·편의점 등은 제외

•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과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을 함께 표기
- 메뉴판과 포장지의 소비자가 읽기 쉬운 곳에 판매 음식의 열량을 표기
- "보통 성인은 하루에 8,700킬로줄(kilojoule)의 음식열량을 섭취합니다."는 문구를 함께 표기

– 관리체계 및 향후 진행

• 2018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12개월간 계도 기간 적용
- 계도 기간 중 주정부는 대상업소에 무료 음식열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
- 지침서 제작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고 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

• 제도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
- 규정을 어긴 개인에게는 벌금 최대 3,100호주달러(260만 원)와 벌점 20점을 부과
- 해당 업체에는 벌금 최대 1만 5,500호주달러(1,300만 원)와 벌점 100점을 부과

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mandatory-kilojoule-labelling-on-the-menu-in-2018/

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mandatory-kilojoule-labelling-for-healthy-food-choices/

https://www2.health.vic.gov.au/public-health/food-safety/food-safety-laws-local-government-and-auditors/food-safety-laws-and-regulations/kilojoule-labelling-scheme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문화·관광

‘재능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·지원’ 공모전 개최

이탈리아 토스카나州 / 문화·관광

○ 이탈리아 토스카나州는 재능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하 국내외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‘현대미술 속의 토스카나(Toscanaincontemporanea) 2017’ 공모전을 개최

- 배경
  - 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확대
    - 토스카나주의 예술 분야는 르네상스 예술이 주를 이루지만, 앞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미술 분야의 예술가 발굴에 집중
    - 여러 도시에서 활동 중인 젊은 예술가에게 사회적·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
  - 현대미술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을 증대
    - 재능있는 젊은 예술가와 함께 사회적 프로젝트를 협업하고,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결하여 현대미술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
    - 시민에게 현대미술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

- 주요 내용
  - 대상
    - 토스카나주에서 활동 중인 35세 이하의 이탈리아 혹은 외국 예술가
    - 토스카나 대학(원)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35세 이하 학생

  -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참여
    - 1) 토스카나주에 이미 설립된 문화예술 단체, 박물관, 미술관, 예술학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각 예술 프로젝트
      - 해당 기관에 전시 가능한 설치미술이나 전시 컬렉션, 혹은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각 예술 프로젝트
      - 기관과 협업하여 문화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 등

◦ 2) 지역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
- 도시 문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
- 현대미술 분야의 시민 참여를 늘리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
- 프로젝트는 워크숍·전시·세미나·예술가 레지던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가능

• 지원 및 심사
◦ 프로젝트 총예산의 50% 이상을 토스카나 펀드로 지원
- 총 35만 유로(4억 3,700만 원)를 지원금으로 책정
- 예술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총예산과 지원받을 금액을 가능한 한 정확히 명시
◦ 토스카나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팀이 아래 기준으로 함께 심사
-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예술적 가치(30점)
- 현대미술계 기여도와 지역 문화에 끼칠 영향력(20점)
-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조직적 체계(20점)
- 예술가 개인의 경력과 재능(15점)
- 프로젝트의 구체성(15점)

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-/toscanaincontemporanea-2017-bando-per-artisti-under-35

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bancadati/atti/Contenuto.xml?id=5145725&nomeFile=Decreto_n.5574_del_27-04-2017-Allegato-A

http://giovanisi.it/2017/05/10/toscanaincontemporanea2017/

http://www.informagiovaniarezzo.org/toscanaincontemporanea-2017-bando-per-artisti-under-35/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사회·복지

사회적기업에 사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지원

호주 빅토리아州 / 사회·복지

○ 호주 빅토리아州는 2017년 2월 호주 최초로 '사회적기업 전략'(Social Enterprise Strategy)을 수립하였으며,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

- 배경
  - 빠르게 성장 중인 호주의 사회적기업
    - 사회적기업은 호주 전체에 약 2만 개가 운영 중이며 전체 국내 총생산의 2~3%를 담당
    -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이내 설립된 기업으로, 최근 성장 속도가 증가
    - 빅토리아주는 5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인 호주 사회적기업의 본거지
  - 사회적 효용성은 높으나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
    - 주로 사회적 약자(장애인·홈리스·원주민·이민자·청년 등)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며, 빅토리아주에서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
      - 공공 및 민간기관의 건물을 유지·보수하는 사회적기업 '리빌드'(Rebuild)는 청년 전과자를 고용하고, 수익금을 이들의 직업훈련에 사용
    - 대부분 2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며, 다른 기업에 비해 가용자원이 부족
      - 초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
  - 주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, 네트워크 구축, 직원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'사회적기업 전략'을 수립

- 주요 내용
  - '사회적기업 전략'은 사회적기업의 번성과 장기 지속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

- 1)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확대: 대중·투자자·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가치 및 창출 가능한 사회·경제적 효과를 홍보
- 2) 사업능력 향상: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훈련 제공
- 3) 가용자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접근성 향상

• 총 1,080만 호주달러(90억 3천만 원)의 예산을 주로 다음 세 가지 사업에 활용
  -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
  - 사회적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훈련 및 계발 프로그램 지원
  - 정부의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확대
•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과 자원을 되도록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계획
  -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'사회적 조달 계획서'(social procurement)제출을 의무화할 계획
    - 예시: 정부 프로젝트인 위험한 철도 건널목 제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'사회적 조달 계획'으로 보육시설 주변에 9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, 이 조경사업에 장애인을 위주로 한 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

- 관리 및 평가 계획
• '사회적기업 전략' 실행 첫해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·파트너십 형성 등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기초작업 위주로 진행
•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전략 수행평가를 시행할 예정
  - 1)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율
  - 2)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
  - 3) 사회적기업의 수 및 장기지속률

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the-new-era-of-social-enterprise-in-victoria/

http://economicdevelopment.vic.gov.au/about-us/overview/strategies-and-initiatives/social-enterprise

http://economicdevelopment.vic.gov.au/__data/assets/pdf_file/0008/1435868/10371_DEDJTR_EDEI_Social_Enterprise_Brochure_A4_WEB_FINAL.pdf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행재정·교육

비정규 교과활동 프로젝트 수행 시민단체 지원

프랑스 파리市 / 행재정·교육

○ 프랑스 파리市는 학교 교육에서 제공해주기 어려운 개별적 아동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배움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 교과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재정지원 하기로 결정

- 배경: '파리 지역교육 프로젝트'(PEDT, Projet éducatif de territoire)
  - 파리에 사는 아동과 청년의 교육적 성공과 개인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    - 평등한 학교 만들기, 교육 과정의 일관성 강화, 일과 가정의 통합을 위한 학부모 지원 등

  - 모든 교육 관련 주체를 지역 공동체의 주도 아래 결합하는 지역 협동 장치
    -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프로젝트
    - 2016년 9월 파리시장 안 이달고(Anne Hidalgo)는 이 프로젝트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안에 서명
    - 교육 전문가·교육부·파리시·관련 시민단체·지역 후원단체·학교 교육위원회 및 행정팀·학교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

  - '파리 지역교육 프로젝트'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
    - 1) 모든 아동의 교육 가능성을 믿으며, 이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침
    - 2) 파리 전체의 사회적·문화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아동마다 다른 발달주기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
    -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최고의 사회통합 조건을 제공
    - 3) 활발한 교육 프로젝트 제공으로 배움의 동기부여를 강화

- 주요 내용
  - 비정규 교과활동은 '파리 지역교육 프로젝트'의 하나로 추진
    -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각자의 구체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배움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함

  - 지역적 필요와 혁신적 교육방법에 기반을 두며, 시민단체가 수행하고 파리시가 재정지원
    - 시민단체는 2017/2018학년도에 수행할 새로운 비정규 교과활동을 제시
    - 파리시는 신청한 시민단체 중 96개 단체의 270여 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지원 예정
      - 선정된 단체는 매주 화·금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비정규 교과활동을 수행하며, 수업횟수는 한 학년도당 36번
      - 2017년 5월 9~11일 시의회에서 단체 선정을 위한 투표 시행

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action-periscolaire-la-ville-soutient-les-projets-d-animation-dans-les-ecoles-4785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환경·안전

도시 소비 모든 에너지,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

캐나다 밴쿠버市 / 환경·안전

○ 캐나다 밴쿠버市는 2050년까지 도시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고,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없애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

- 배경
  - 밴쿠버시는 북미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 도시지만,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문별 전략계획을 발표
    - 전력부문에서는 건축물·교통·기타 인프라 등 도시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

- 주요 내용
  - 2050년까지 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
    - 2014년 현재 5,930만 기가줄(GJ: Gigajoule)인 총 에너지 사용량을 2050년까지 3,830만 기가줄로 낮출 계획
    - 2014년 현재 1,900만 기가줄인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량을 2050년의 예상 수요에 맞추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
    - 화석연료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줄여 2050년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
    - 개별 시민과 지역 단위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

  -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2050년까지 200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% 이상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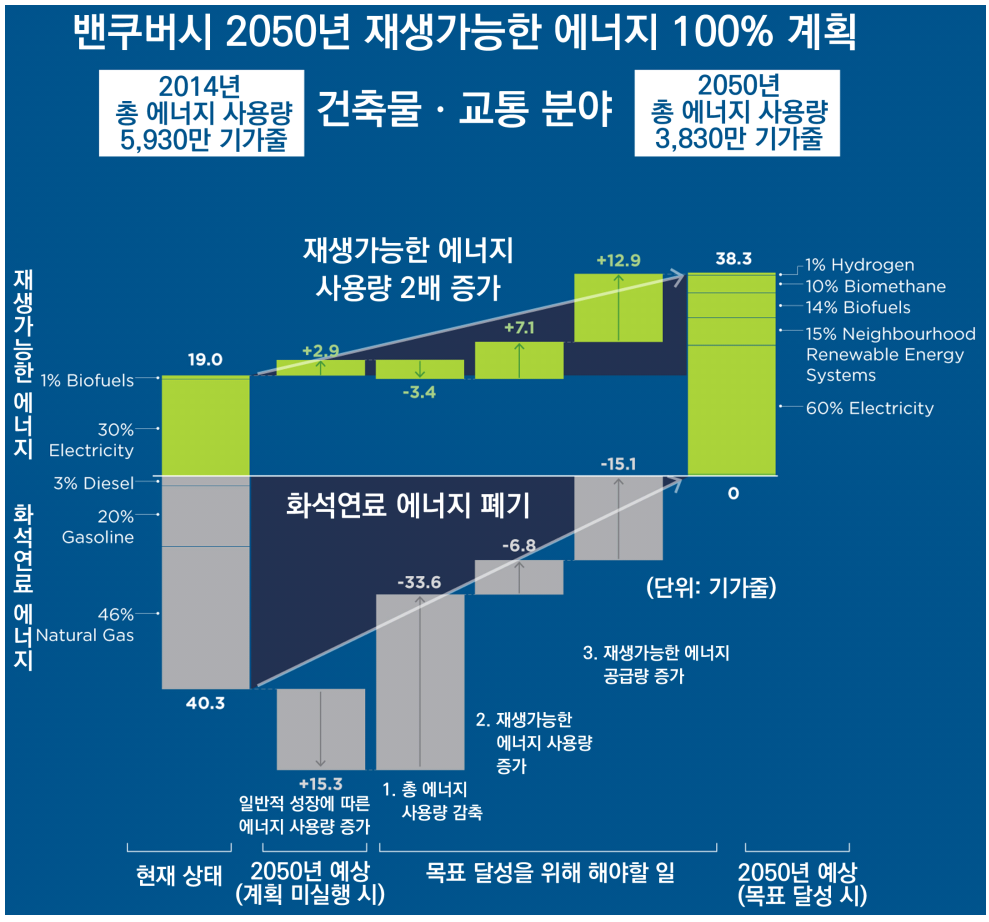

그림. 밴쿠버시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대체 계획 청사진

http://vancouver.ca/green-vancouver/renewable-city.aspx

http://vancouver.ca/files/cov/renewable-city-strategy-summary.pdf

김민희 통신원, minhee.kim.crp@gmail.com

도시계획·주택

“칸 시장,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에 정책 우선순위”

영국 런던市 / 도시계획·주택

○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(Sadiq Khan)은 200만 명이 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으며, 이를 위해 부담가능 주택 건설과 보증금 무이자 대출 및 악덕 임대업자 목록 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

- 배경
  - 런던시민의 25%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약화
    - 지난 몇 년간 런던의 주택 임대료 상승은 더욱 심화했으며, 200만 명이 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필요성이 대두
    - 시정부는 장기적 대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   -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

- 주요 내용
  - 주택 중개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법안 승인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
    - 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중개 수수료라는 이중고를 겪는 시민을 위해 런던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폐지 법안 승인을 촉구

  - 1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‘임차 보증금 대출’(Tenancy deposit loan) 제공
    - 칸 시장의 ‘고용주가 보장하는 주거’(Employer Pledge on Housing) 정책으로, 많은 런던 기업이 고용인에게 무이자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
      - 많은 고용인이 런던 시내의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가 가능해짐
    - 칸 시장은 기업뿐 아니라 경찰 및 교통 관련 시 공공기관(Metropolitan Police and Transport for London)도 근로자에게 이런 대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최근 서명

- ‘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’(London Living Rent)을 이용한 부담가능 주택 공급을 시작
  - 런던 자치구별 중위가구 총소득의 1/3 수준의 월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
  - 임대료를 낮춰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

- 집주인의 임대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
  - 민간임대 부문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런던 내 모든 자치구(borough) 및 의회와 협력
  - 악덕 임대인 근절을 위해 ‘지역 임대 자격증 제도’(Local Licensing Scheme)를 도입하는 자치구를 적극 지원

- 임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·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
  - 모든 자치구의 악덕 임대인·중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, 전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
  - 올해 가을 런던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
  - 1차 공개에는 브렌트(Brent), 캠던(Camden), 뉴엄(Newham), 서더크(Southwark), 서턴(Sutton), 킹스턴(Kingston)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
  - 나머지 자치구도 이후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참여할 예정

https://www.london.gov.uk//city-hall-blog/how-mayor-helping-people-renting-privately-london
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housing-and-land/renting/london-living-rent
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to-name-and-shame-criminal-landlords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정보·기타

점포·시설 등 안내 고정밀 실내외 음성 내비게이션 실험

일본 도쿄都 / 정보·기타

○ 시미즈 건설(清水建設)과 일본 IBM 주식회사는 일본 도쿄都의 니혼바시 무로마치(日本橋室町) 지역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도시의 실내외 점포·시설 등을 안내하는 고정밀 음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수행

- 배경
  - 보행자를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필요성에 주목
    - 현재 야외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(GPS)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지만, 지하나 실내에서는 GPS 신호도 약하고 지도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
    - 시미즈 건설과 일본 IBM 주식회사는 실내외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2015년부터 공동 개발 중
      - 일반인은 물론 휠체어 이용자·시각 장애인·외국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
      - 2017년 2월부터 3주간의 실증실험을 수행

- 실험의 주요 내용
  - 도심의 주요 상업 공간을 실험공간으로 설정
    - 이 실험은 도쿄 지하철 긴자선(銀座線) 미쓰코시마에역(三越前駅)부터 '에도사쿠라'(江戸さくら) 지하보도, 상업시설 '코레도 무로마치'(コレド室町)에 이르는 총면적 21,000㎡의 지역에서 수행
    - 이 지역은 영화관·음식점·패션·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상점 92개가 있으며, 항상 많은 방문객으로 붐비는 장소
      - 방문객이 원하는 목적지(점포나 시설)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요구되는 지역
      -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많은 외국인의 방문이 예상되어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한 지역

- 보행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요
  - 고정밀 측위 인프라,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, 고정밀 실내 위치추정 기술, 음성 인식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제작
  - 실내에서는 5~10m 간격으로 설치한 비콘(전자파를 활용해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시설)을 활용해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
  -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가고 싶은 곳을 대화하듯 제시
  - 사용 예시

> 이용자: “어린이와 같이 후식으로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.”
> 시스템: “이 근처의 유명한 베이커리 OO를 추천합니다.”
> 이용자: “그럼 그곳으로 안내해주세요.”

-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
  - 일반 보행자에게는 최단 경로를 안내
  -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계단이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로를 안내
  - 시각 장애인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
  - “앞으로 9m 가서 정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세요.”, “엘리베이터 문 오른쪽에 점자 버튼이 있습니다.” 등 시각 장애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
  - 이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어와 영어로 제공

http://www.nikkei.com/article/DGXLASDZ26H7P_W7A120C1000000/
https://www-03.ibm.com/press/jp/ja/pressrelease/51490.wss
https://www.re-port.net/article/news/0000050625/
https://www.shimztechnonews.com/hotTopics/news/2017/170309.html#1

이용원 통신원, udesigner201@gmail.com